

방콕 대리석사원에 한국불상

세계적인 사원인 태국방콕 대리석사원(벤차마 보트)에 한국불상이 모셔진다.

충북불교문화회관(관장 박호표, 청주대 교수)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재)선학원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해 12월 15일 3백여명으로 구성된 한-태교류방문단(단장 정일스님)이 대리석사원에서 한-태문화교류법회와 한국의 부처님 봉안식을 갖는다. 세계인들의 참여가 잦은 태국 대리석사원에 한국의 불상이 모셔짐으로써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동시에 한국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리석사원은 현재 본당과 회랑에 석가모니 좌상, 입상, 고히상, 열반상, 같은 부처님상 등 중국, 일본 등 세계 53개국의 청동불상이 봉안돼 있다. 매년 2천만~3천만명의 세계 각국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리석사원의 한국불상 봉안은 몇 번 추진했던 사안이다. 특히 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정부차원에서 불상을 조성해 봉안하려 했으나 회랑에 장소를 마련할 수 없어 아외에 에밀레종 모형만 안치했었다. 한-태교류방문단 단장 정일스님(선학원 이사장)은 "세계적 사찰인 대리석사원에 한국부처님을 모시게 돼 기쁘다"며 "이번 법회를 통해 한-태 불교계간의 지속적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불교회관 1돌 기념 내달 15일 봉안식 세계 각국 청동불 전시...매년 3천만명 방문 한태문화교류 법회·한인학교 기금전달

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태교류 방문단은 태국교민회가 주최하는 태국교민의 밤에도 참석하여, 천막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민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인학교 건립기금도 전달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이암왕국(1350~1767)의 수도인 아유타와 유적등 태국불교 성지순례도 실시한다. 참가문의 (043) 294-6193.

한편 대리석사원은 노예제도를 없애고 외세의 식민지침략을 막아내어 태국에서 성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풀라통콘대왕(1868~1910)이 왕자 시절부터 세계 각 나라의 부처님을 모시고 세계불교문화를 집대성하겠다는 원력을 세워 1900년 건립한



◇매년 2천만~3천만명이 찾는 세계적 사원인 태국 대리석사원에 모셔지는 한국불상. 청동 석가모니좌불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영주 사립교 '종교편향'

동산여중등 6개교 수업시간 성경공부

영주 시내 6개 사립학교(동산여중, 동산여자전문학교, 영광여자중·고, 영광남자중·고)의 종교편향 교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 실천승려회(회장 도기스님)와 영주·봉화사원연합회(회장 덕운스님)는 13일 "영주시내 6개 일반 사립학교가 종교교육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예배를 1주일 한 번씩 실시하고, 정규수업시간에 각 반별로 성경교육을 하고있다"며 70여명의 스님과 1700여명의 학부모가 서명한 진정서를 영주시교육청 교육장 앞으로 전달했다.

실천승려회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스님들이 교육청을 방문해 항의를 해 왔지만, 종교편향 교육이 계속되어 불자 등 타종교인 자녀들이 등교를 싫어할 정도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은 이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영주시교육청은 스님

들의 4차례의 항의방문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현장확인도 실시하지 않은 채 '장학 이념' 운운하며, 형식적인 공문 발송으로 책임 회피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경 기자

부산 티베트불교센터 개설

나이란다청년회 사찰 기증

부산 나이란다불교청년회(지도법사 김도환)는 원찰인 부산의 광성사를 티베트인 초콜 스님에게 기증해 티베트 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티베트 불교의 관례대로 운영되는 광성사는 앞으로 각종 법회와 티베트어 강좌, 달라이라마의 저술과 티베트경전의 번역, 출간,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티베트 불교를 한국에 알리는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초콜 스님은 "광성사를 티베트와 한국 불자들 간의 교류·협력의 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직지 찾기' 고승 대법회

27일부터 충북불교회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극속학자본 <직지심체요절>을 선양하는 법회가 열린다.

청주·청원불교연합회와 대한불교청년회 충북지구는 오는 27일부터 12월1일까지 청주 충북불교문화회관에서 '직지 대법회'를 마련한다.

이 법회는 큰스님을 초청해 '직지'에 담긴 뜻을 집중적으로 이해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직지'는 과거 부처님과 인도의 조사, 중국의 선사들의 말씀을 적어 놓은 불전. 고려말 백운화상이 편찬한 것으로 인도 중국 한국 고승들의 법어와 대화, 편지 등에 선(禪)의 요체를 깨닫는데 필요한 것만을 수록한 것이다.

항림사 조실 천운스님(27일), 조계종 전계대화상 해정스님(28일),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29일), 백련사 조실 운경스님(30일), 선학원이 사장 정일스님(12월1일) 등이 법륜을 강요한다. 강연시간은 매일 오후 6시30분. (043)294-0107 김재경 기자



◇불자 재소자들이 공연한 명창이 각색한 '홍부전'을 통해 참회와 재발심의 의지를 함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성진 가락에 담은 참회심" 대전교도소 불자재소자 창극 '홍부전' 공연

"이 몸이 부서져도 번뇌를 끊으리라. 참살속에서 만난 불법인연. 이생의 업이 다해 흠으로 가더라도 소중히 간직하리라."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불자 재소자들이 그동안 길고 닳은 찬불가와 춤, 연기 실력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가 펼쳐져 화제. 재소자들이 교도소 밖에서 공개 공연을 가진 것이 이번이 처음으로

대전교도소(소장 강봉학)에서 복역중인 불자 재소자 14명은 15일 대전 엑스포아트홀에서 자신들의 가족과 교도소 직원 및 가족, 교화위원, 불자 등 10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석 달여 동안 연습해 온 각색 창극 '홍부전'을 무대에 올렸다.

대전교도소가 주최하고 대전교도소교정협의회(회장 해명스님)가 주관한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무형문화재 공극인 명창이 홍부의 형제로 출연. 창극을 직접 연출하면서 조들리고 고스른 생활에서의 한과 재소자들의 새 서원을 창과 춤으로 표현해 불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홍부전의 막이 오르기에 앞서 진각종 삼인합청단과 재소자들은 함께 '업', '흠으로 가더라도'

지금까지 지은 죄업을 깊이 참회하는 내용의 찬불가를 합창했다. 이어 세상의 열림과 인간의 탄생을 의미하는 법고 연주와 함께 펼쳐진 본무대에서는 법고 소리가 절정으로 치달는 순간 재소자들이 등장해 인간 세상의 일탈과 방종 및 범죄, 또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 등을 몸짓으로 담아 냈다.

재소자들은 또 홍부의 가족들이 박을 타는 장면부터는 원전을 각색, 밖에서 쏟아지는 재물들을 홍부의 자식들이 서로 많이 가지려 아귀다툼을 벌이는 순간 재물이 사라지고 홍부의 처도 함께 없애지게 함으로써 재물의 덧없음과 재물욕으로 인해 우리는 진실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가 깨닫도록 했다.

공연의 막바지에는 다시 법고 연주가 시작되고 출연진과 관객 모두가 감동에 젖어 반아침경을 암송하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시간도 연출됐다.

대전교도소는 이번 공연 내용을 비디오로 제작, 전국 50여개 교도소와 소년원의 정식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해명스님은 "죄가를 치루고 참회한 재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 불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김재경 기자

"자연과 인간 하나되길"

미항사 산사음악회 성황

땅끝마을 해남 미항사에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사진)

전남 해남군 송지면 달마산 미항사(주지 금강스님)는 '달마랑, 별이랑, 사람이랑'을 주제로 한 산사음악회를 11일 밤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가수 한치영의 노래와 박남준의 시낭송, 정기열의 판소리 등이 어우러져 깊어가는 가



음밤의 정취를 누렸다. 금강스님은 "너무도 청명한 달과 별을 혼자만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 같이 보자고 초대했다"고 행사 취지를 말했다.

조운오 목포지국장

종 단 소식

조계종
포교사고시 실시
포교원(원장 정련)은 26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LA 등 7곳에서 동시에 제6회 포교사 고시를 실시한다. 이번 포교사고시에는 6백30여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차 합격자는 12월 26일 발표하며, 1차 합격자 연수가 1월부터 열린다.

화엄산림 대법회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신해)는 오는 26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12월25일까지 한달 동안 화엄산림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상우스님의 입제법문과 신해스님의 회향법문 때가지 무비 중법 율운 지안 성공 현근 화산 각성 스님을 법사로 <대방광불화엄경>을 공부하게 된다. (055)382-7182

태고종
'동방인의 밤' 행사
총림 동방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도성)는 12월 4일 오후 5시 서울 태워호텔에서 제4회 동방인의 밤 행사를 갖는다. 행사는 1부 기념법회와 2부 친교의 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무량종
총무원장 해안스님
14일 제2차 정기 중앙총회를 열고 제3대 총무원장에 정해안스님(지리산 칠보정사 주지·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해안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 취재와 기쁨을 바로 세우고 화합 단결하여 한국불교 발전과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임 총무원장 해안스님은 1943년 경남 하동 생으로 76년 금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88년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수료했다. 총화종 제무·사회·총무 부장과 부원장, 총무원장 직무대행, 교육원장을 역임했고 99년부터 무량종 중앙총회회장을 맡아왔다.

진각종
보살심선계 수계 불사
13일 서울 탑주심인당, 14일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http://www.avatarcenter.co.kr ☎(02) 396-2736 H-P 016)228-2358 E-mail : bukba@kornet.net FAX (02) 396-2735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룡(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 하여

소원성취·안전운행·사업흥왕·불화방지·가내화합·시험합격·악귀퇴치·극락왕생·신신수호·삼재예방·관재소멸·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 육기방 수호신장(六氣方 守護神將) ◆

좌청룡(靑龍) : 천하 4방중에 좌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좌청룡이라 불리워진다. 풍수의 학설에 따르면 청룡에서 발생하는 생기(生氣)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우백호(白虎) : 천하 4방중에 우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우백호라 불리워진다. 우백호의 기세에서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과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청룡이 남성이라면 백호는 여성이라 말할 수 있다.

남주작(朱雀) : 천하 4방중에 남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남주작이라고 불리워진다. 주작의 기세에서는 큰 재산을 모으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북현무(玄武) : 천하 4방중에 북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북현무라 불리워진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된다.

천하(天下)대장 : 천하의 신(神)을 관장하고

지하(地下)대장 : 지하의 신(神)을 관장한다.

마을마다 장소에 세워진 뜻은 여기에 있다.

※ 주지스님 천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오.

기(氣)란 : 현실이다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범종과 왕관을 떠받치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 방이라 한다.

◀ 기(氣)의 중요성 ▶

기(氣)란 현실이다

기(氣)가 약하면 액운이 따르기 마련이고

기(氣)가 강하면 강자가 될 수 있고

기(氣)가 약하면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을 것이다.

※ 육기방에 효험은 좋다는 분들이 많다.

◆ **사용처** ◆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제, 등 여러곳에 사용함.

◆ **구입처** ◆ 사찰, 암자, 철학관

※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 051) 865-9933
공정 : 051) 864-7878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 **생각처도 많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나 기적(奇蹟)이나 하는 소리가 많다.** ◆